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귀중성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가 강하게 연결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며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방편과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 영생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 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시간 시간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불경 속에는 구원론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긴자요 메시야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비결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이며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란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된 자요, 하나님이 된 자는 바로 고통과 괴로움을 모르는 행복 가운데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은 나(자신)를 항상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라야 '나'를 항상 버렸다' 가 되는 것이다. 그가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마귀요 죄요 선악과인 고로 나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마음을 품은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고로 죄를 없애는 비결은 바로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없애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며 또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 라는 개체의식이 없어지는 고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어진 까닭인데 이처럼 나를 없애는 비결은 초초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또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명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긴 바 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측으로 가고 싶다고 하여 우측으로 갈 수가 없고 좌측으로 가고 싶다고 하여 좌측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내 몸이 아닌 하나님의 몸, 온전히 맡긴 바 되어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생활하는 것이 '나'를 항상 버리는 생활입니다. 내 몸이라고 내가 이려고 저려고 하면 그는 나를 버리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탈을 벗으려면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을 100% 지양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예배 인도만 하면 이슬이 쏟아지는 까닭은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는 까닭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함을



구세주 조희성님

얻었으며 또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슬이 쏟아지는 자는 구세주요 메시야이며 이슬이 바로 생명의 만나인데 그 이슬이 이 사람의 몸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슬을 받으려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고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비결이며, 또한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비결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되는 비결의 말씀이며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 부활함을 입는 비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한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고 난 후부터는 세상 줄을 끊어야 합니다.

세상 줄을 끊으려면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완전히 버려야 하며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 무궁토록 사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 진리를 따라와서 함께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녹음테이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 나라' 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요 하늘나라라는 말로써 하나님 자체가 생명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마음이며, 사망을 이기는 마음이며 사망을 이기는 자는 '이긴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자가 보혜사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이 생명과일이요, 생명과일이 곧 천국이요, 천국이 곧 믿음이며, 믿을 자체가 부활이요, 부활 자체가 곧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이색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는 아주 성경적이고 불경적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테이프로 담아서 늘 듣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귀에 들려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기 때문에 차를 탈 때나 일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보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귀중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마귀가 세상으로 끌려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녹음테이프를 통해, 계속해서 이긴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방안에 혼자 있을 때도 늘 녹음테이프를 틀어 놓고 할 일을 하고, 잠을 잘 때도 잠이 들 때까지 녹음테이프를 들어

야 하는 것입니다. 녹음테이프를 들으면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낙오하고 맙니다. 오염이 돼서 은혜 받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을 느끼며 항상 기도해야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귀중성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가 강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을 모르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는 자에게는 은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입문한 지 며칠도 안 되는 새식구에게 이슬내리는 것이 보이고 이 사람 돌레에 있는 후광이 보이고 생수가 입안에서 강같이 흐르는 체험을 하는 것이 왜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구(舊)식구들은 이 사람이 매일 예배를 보니까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날이 그날 같이 마음에 변화도 오지 않고 은혜 체험도 못하는데 비해서 새식구들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귀중성을 자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세가 흐트러고 예배 보는 자세가 무뎠도 꿇지 않고 탁 퍼져 앉아 있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됩니다. 사정상 무릎 꿇지 못하면 마음이라도 경건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보아야 하는데 마음이 풀이질 대로 풀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개똥상놈'으로 보이면 은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조희성님의 간증담

대동군 치안대장을 역임하며 인민군을 소탕하다

한 달 만에 곁에서 나오니 모발은 아무렇게 막 자랐다. 햇빛을 보지 못한 피부는 하얗게 되었다. 20세의 젊은 청년이 30대로 나이가 들어 보였다. 게다가 구레나룻 수염이 무성하게 자랐으니 나이가 더 틀게 보였을 것이다.

굴속에서 나온 이 사람을 보고 대동군내에 있는 반공 대원들이 치안대를 조직하자고 하였다. 그러면서 치안대장을 하라고 추대하였다. 이 사람은 아직 어리고 뭘 잘 모르니 여기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어른들이 하면 좋겠다고 설득하여도, 그들은 끝까지 나를 지목하면서 하는 말이 "총살 집행까지 당했던 철저한 반공주의자니까 빨갱이 때려잡는 데는 제일 적격이다" 하며 막무가내로 시키는 것이었다. 극구 사양하였으나 많은 사람이 조종자가 가장 책임자라 하여 할 수 없이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반공 청년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동군 치안대를 이끌고 인민군과 좌익에 몰든 청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는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어떤 치안대원들은 인민군을 포로로 잡기만 하면 가져가서 총으로 쏘 죽이는 것이었다. 이 사람의 사고방식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강경하게 호소하였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36년간 식민지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아 독립 국가를 세운 지 불과 몇 년이나 되었느냐?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비극적 동족상잔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먼 훗날 치욕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몇몇 위정자들의 놀음에 우리가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들만이 라도 서로 죽이는 일은 삼가하자. 사상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사상만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치안대 젊은 청년들을 모아 놓고 눈물을 흘리며 열변을 토했다.

이렇게 하니 3분의 2 정도의 대원은 수긍을 하며 호응하는데 나머지 대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이 안(案)은 다수결로 통과되었는데 삼분의 일 정도의 대원들은 "이 빨갱이 놈들은 악질 중의 악질로서 우리 부모를 죽이고 형제자매를 무참히 학살하고 죽였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며 잡기만 하면 무성하게 죽이려고 했다. 그때마다 말려서 죽음을 면하도록 힘을 써서 형무소로 넘겨진 사람이 많이 있었다.

영웅적 전공을 세우다



치안대장 당시, 놀라운 전과를 올린 이런 일이 있었다. 밤 12시쯤 되어 어떤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들어 왔다. "저 산 너머 독립가옥 두 채에 인민군 군관단으로 조직된 특공대 2백 명이 대동군 치안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가옥 한 채에 100명씩 두 곳으로 나누어 현재 식사 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 급보를 접하고 바로 긴급하게 치안대원을 모았다. 밤이 깊어서인지 겨우 5명밖에 모이질 않았다. 일일이 대원들 집에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5명만을 데리고 야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을 작정으로

전화줄 꾸러미를 챙겨서 뛰어다니게 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인민군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지략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5명에게 각자 임무를 부여했다. "너는 1소대장, 너는 2소대장, 3소대장, 4소대장"이라고 각각 임명된 후,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다. "도착하면 적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포위한다. 내가 신호하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총을 쏘다가 내가 신호탄을 쏘면 '사격중지!' 하면 사격을 멈춘다. 그리고 '3소대장 한 댕 명만 데리고 와!' 하면 다 오는 거다" 하는 작전 세 부 계획을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 신속

하게 외딴 집을 향하여 출발했다. 발걸음을 살피며 조심스레 도착하자마자,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주변을 파악하였다.

기아와 집 두 채가 나란히 있는데, 안과 밖이 보이지 않도록 좁은 담이 둘러쳐 있었다. 그 두 집 주위를 뱅 둘러서 몇 분 간에 걸쳐 일제히 요란하게 쏘아대니 조용한 밤하늘이 뒤흔들릴 정도였다. 인민군들은 안에서 밖이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깜깜한 한밤중에 사방에서 갑자기 퐁 퐁 하는 듯한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니 한참 식사 중이던 인민군 특공대 200명 모두는 정신적으로 혼비백산하여 완전히 제압을 당하게 되었다.

그때 대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이 사람이 노란 신호탄을 쏘며 "사격중지!" 명령을 큰 소리로 하게 되니 갑자기 사격이 중지되고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1개 중대는 너희들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목숨이 아깝거든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수류탄을 퍼부어 전멸시킬 것이다" 이 사람의 저명저명한 굵은 음성인 조용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쥐죽은 듯 조용한 시간이 지나고 몇 초 있으니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

소.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는 나이 들직한 사람의 음성이 울려 나왔다. "알았소." 해 놓고, 큰 소리로 "3소대장 지!" 명령을 큰 소리로 하게 되니 겁이 나고도 군 경험이 없었던 고로 허버면 잘못된 수 있었던 그런 우(愚)를 범하였던 것이다.

"전원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고 한 명씩 나와!" 하고 명령을 하니 우르르 손을 들고 대문 밖으로 한꺼번에 나오는데, 그 순간 몸속에 흑시 무기를 숨기고 있을 땐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고로 곧바로 공포를 두 발 쏘며 "도로 들어가!" 소리쳤다. 다시 소리치기를 "너희들 전부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나와! 만약 나오라는 명령이 없는데도 나오면 무조건 사살하겠다! 명령이 떨어지면 한 사람씩 나와! 알겠나!" 해서 한 사람씩 나오게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나오는데 사람마다 가져갔던 전화줄로 두 손을 벗고 뒤로 묶여서 200명 전원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포로로 사로잡았다.*